

세계속의 한국경제

1. 국민소득

- 우리나라의 경제규모(미달러화기준)는 70년대 이후 연평균 17.7% 확대되어 국민총생산(경상 GNP 기준)이 70년의 81억달러에서 93년에는 3,287억달러(70년의 41배)에 달하였음.
 - 이에 따라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순위도 70년의 제33위에서 92년에는 15위로 부상
- 1인당 국민소득은 70년에는 253달러로 후진국 수준에 머물렀으나, 93년에는 7,466달러에 이르고 있음.
 -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순위도 70년의 세계 제80위에서 92년에는 38위로 부상
- 우리나라 경제는 71~93년중 수출과 투자에 주도되어 연평균 8.0%(원화표시 불변 GNP 기준)의 고도성장을 기록하였는데, 이러한 성장속도는 중국(9.4% : '80~'93 연평균), 대만(8.5%), 싱가포르(8.0%) 등과 더불어 세계 최상위권에 속하며, 최근 들어서도 성장세가 다소 낮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.

2. 대외거래

- 우리나라의 교역액은 70년의 28억달러에서 88년에 1,000억달러를 넘어선 후 93년에는 1,660억달러에 이르렀음.
 -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교역액 순위도 70년의 세계 제41위에서 92년에는 제13위로 부상
 - 우리나라 교역액이 전세계 교역액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0년의 0.5%에서 93년에는 2.2%로 크게 증가
- 수출입비중(교역규모/국민총생산)은 70년대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의 영향으로 70년의 34.7%에서 80년에는 65.6%까지 상승하였으나,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내수비중이 늘어나 93년에는 50.5%로 낮아졌음.
 - 이와 같은 수출입비중(93년 기준)은 싱가포르(285.2%), 대만(73.7%)보다는 낮으나, 미국(16.8%), 일본(14.2%), 중국(35.5%) 등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임.

3. 저축·투자 및 물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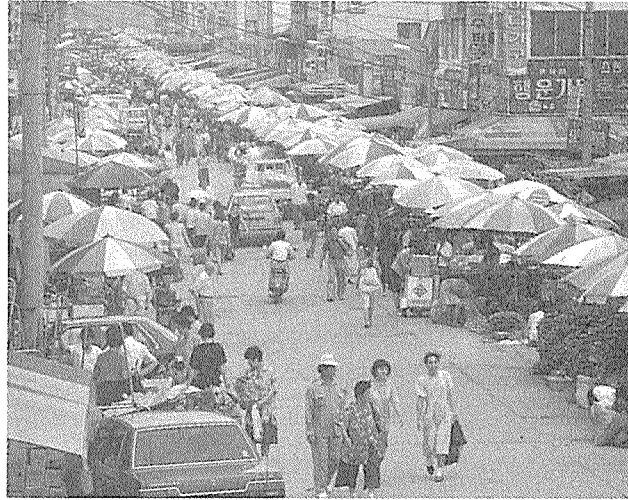
- 80년중 우리나라의 총저축율은 23.2%에 불과하여 일본, 대만, 싱가포르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으나, 이후 소득수준의 향상 등에 힘입어 92년에는 34.9%까지 높아졌음.
 - 이는싱가포르(46.7% : 91년)보다는 낮으나, 일본(33.8%), 대만(28.0%), 독일(23.7% : 91년) 등 주요 무역흑자국 보다 높은 수준임.
- 국내총투자율은 기업의 설비투자 및 공공부문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으로 87년 이래 30%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, 92년중에는 36.8%에 달하였음.
 - 이는일본(31.1%), 독일(22.5% : 91년), 대만(23.8%) 등 주요 무역흑자국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으로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이 되었음.
- 우리나라의 물가는 70년대에는 GNP디플레이터상승률 연평균 20.2%, 생산자물가상승률 연평균 16.1%, 소비자물가상승률 연평균 14.9%로 선진국들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나, 80년대 들어서는 한자리수의 비교적 안정된 수준을 보였으며, 이러한 추세는 90년대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음.
 - 그러나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(90~93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: 7.2%)은 아직도 대만(3.8%), 일본(2.3%), 미국(3.9%) 등 주요국에 비해서 크게 높은 수준임.

4. 산업생산

- 우리나라의 철강생산량(조강기준)은 70년에는 504천M/T에 불과하였으나, 93년에는 33,026천M/T으로 65배 이상 증가하였음.
 - 세계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0년에는 0.09%에도 못 미쳤으나, 93년에는 4.6% 수준으로 상승하여 일본, 중국, 미국 등에 이어 세계 제6위의 철강 생산국으로 부상
- 전력생산량은 70년의 92억Kwh에서 93년에는 1,444억Kwh로 증가하여 세계 제15위에 이르고 있음.
 - 그러나 발전능력은 91년 현재 24.6백만Kw로 세계 제19위

(전세계 발전능력의 0.9%)에 머무르고 있음.

- 선박건조실적은 71년에는 7천 G/T에 불과하였으나 80년대에 일본 다음의 세계 제2위 조선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, 91년에는 3,674천 G/T으로 세계 전체 조선실적의 21.1%를 차지하였음.
- 승용차 생산량은 70년에는 13천대에 불과하였으나 92년에는 1,259천대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세계 제8위 수준이며, 일본의 1/7, 미국의 1/4.5, 독일의 1/4 수준임.
- 인구 1,000명당 승용차 보유대수는 92년 현재 79대로 미국(574대 : 90년), 일본(283대 : 90년), 대만(141대 : 92년) 등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



5. 국민생활

- 우리나라의 의사수는 1인당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외국에 비하여 부족한편이 아니나 병상수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평균수명도 91년 현재 남자가 67.7세, 여자가 75.7세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짧은 수준임.
- 주택보급율은 92년 현재 72.4%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나 자가주거가구비율은 대만과 더불어 높은 수준임.
- 우리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을 반영, 고등교육(전문대 이상) 취학율은 91년 현재 40%로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.
-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TV 및 전화보급율은 그동안 꾸준히 상승하여 왔으나, 아직도 주요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(한은정보 1월호) ♣

소비자 물가상승률 (단위 : 연평균, %)

		'71~'79	'80~'89	'90~'93
한	국	14.9	8.1	7.2
대	만	9.5	4.5	3.8
일	본	9.1	2.5	2.3
미	국	7.2	5.5	3.9
영	국	5.0	2.9	3.6
프	랑	13.2	7.4	5.1
	스	9.2	7.3	2.8

경제규모 및 1인당 국민소득 추이

(단위 : 억달러, 달러)

		1970	1980	1990	1991	1992	1993
〈경제규모〉							
한	국	81	606	2,518	2,920	3,057	3,287
북	한 ¹⁾	40	135	231	229	211	205
대	만	57	414	1,609	1,798	2,107	2,199
일	본	2,033	10,670	29,779	33,816	37,026	42,549
싱	가	19	113	368	428	494	558
미	포	10,155	27,320	55,246	57,371	60,258	63,478
독	국	2,054	8,171	15,153	15,991	17,922	17,057
	일						
〈1인당 국민소득〉							
한	국	253	1,597	5,883	6,757	7,007	7,466
북	한	284	743	1,064	1,038	943	904
대	만	389	2,344	7,954	8,788	10,202	10,548
일	본	1,948	9,137	24,125	27,328	29,795	34,104
싱	가	925	4,688	13,579	15,508	17,514	19,458
미	포	4,952	11,996	22,105	22,750	23,629	24,643
독	국	3,383	13,273	23,964	24,957	27,629	26,025
	일						

주 : 1) 70년 및 80년 수치는 통일원에서 추정된 GNP이며 90년 이후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GNP임.